

# 나주시 시설 지원, 축산악취 잡는다

### 단속 벗어나 농가 시설 개선 유도 저감 시설·장비 등 57억 투입 전남 첫 악취 통합 관제센터 운영

지역 축산업 규모 1위를 점유하는 나주시가 단속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농가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상생의 행정으로 고질적인 축산 악취 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축산 농가 환경 개선과 악취 개선을 위해 플라즈마 악취 저감시설·저감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7월에는 전남 최초의 악취통합 관제센터 개소를 통해 체계적인 악취 관리·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센터는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단계별 처분을 통해 사업주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센터 개소 이전인 2021년엔 834건 2022년에는 360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현장 점검 건수는 279건, 25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악취 민원 건수는 1053건에 현장 점검 건수는 1165건에 달하는 등 민원이 크게 늘었다.

이는 악취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악취 전담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그간 나주시는 센터 개소 이후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28차례 개선명령을 했으며 4건은 고발 조치했다.

반면 이웃의 고충에 공감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축산 농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와 주민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

### 국비 370억 투입...2026년 완공

기후변화에 대응해 미래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장성군은 지난 4일 장성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서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식(사진)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부터 연구·실증,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대지면적 22만7783㎡에 건물면적 4358㎡ 규모로 사업비 37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부지 내에는 종합연구동(지하 1층·지상

2층) 관리사(지상 2층), 경비실 등이 들어선다.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 등 내륙지방 아열대작물 재배 대응은 물론 온난화에 따른 전국적인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관문이자 호남고속도로, KTX 등이 경유하는 교통 요충지에 있는 장성군은 연구 결과 공유가 쉬워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 및 신속성을 한층 높일 수 있어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장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신소득 기회 창출, 나아가 국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공직자-농민대표 담양쌀 소비 촉진 업무 협약

담양군 공직자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을 분담하고자 담양군 농민 대표 단체와 담양쌀 소비 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담양군조합(위원장 김길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담양군지부(지부장 윤연호)는 지난 5일 담양군 공노총 조합사무실에서 담양군 농업회의소(대표 이문태) 및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종혁)과 4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담양쌀 소비 촉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대 노조에서는 소속 조합원이 담양쌀 구매 시 포당 5000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구매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년 대비 담양군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재고량이 80% 증가하고 산지 쌀값이 지속해서 폭락함에 따라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담양군 공직자의 쌀 사주기 운동은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청 공직자 담양쌀 사주기와 함께 매주 수요일은 담양쌀 먹는 날, 명절 선물을 담양쌀로, 향우회원 담양쌀 사주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 쌀값 하락에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강진완도축협 한우 생축장 사들여 편법 운영

### 판매용 사육 목적에 조합원들 반발 "귀표 부착·축산이력제 명의 도용"

강진완도축협이 축협마트 한우 판매용을 목적으로 제2 생축장(우사) 사들이는 등 축산 농가와 경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강진완도축협(이하 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은 올해 3월 강진읍 춘전리에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사육두수 150마리 규모의 한우 생축장을 한 축산농가로부터 매수했다.

하지만 축협이 대형 생축장인 제1생축장을 두고 도마트 한우고기 판매용으로 제2생축장을 사들이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사업에 경쟁되는 행위로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리사업, 투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규정을 위반해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생축장 사업 등의 근본 목적이 한우 우량 혈통등급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수익성만 따지는 비육우 사업장으로 변질돼 한우 농가와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협은 현행 농지법 등 규정상 영리사업이나 투기사업 소지를 앓고 있는 농지나 고

정자산인 건물, 부동산 투자는 농협법 위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축장 매수와 함께 지역 한우 농가의 축사를 임대해 한우를 직영 마트에 공급하다 보니 한우 송아지를 입식해 출하하는 과정에서 송아지 귀표 부착, 농장식별 고유번호, 축산이력제 시행 등에서 결국 타인의 명의를 도용되는 편법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이 사육 농가를 위해 교육과 지원 통해 이익 확대와 보호를 마련하기는커녕 되레 불법임대 등 편법을 통해 한우 사육과 계통출하 원천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사료값은 올라 떨어질 줄 모르고 소값은 최악인 상태인데 조합이 자기 영리에만 치중하면 협동조합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영세 축산농가를 살리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이끄는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래 조합장은 "마트에서 필요시 제1생축장에서는 긴급 물량 조달이 안 되는 구조다. 제 2생축장은 현재 소가 입식도 안 된 상태라 자체 브랜드인 '남부귀리한우'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축사 임대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을 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개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꽃강길.

## 화순천 꽃강길 4ha 코스모스 만개

### 천변 음악분수~학사리보 장관

화순군이 가을을 준비하며 화순천 꽃강길에 4ha 규모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다.

화순천 가을 꽃강길은 음악분수부터 학사리보, 벌고천까지 이어지며 지난 8월에 파종한 노란 황화코스모스와 분홍색의 왜성코스모스가 풍성한 장관을 선사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부터 8월 개화 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코스모스를 파종했으며 9월 중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가우라, 붓들레아, 낮달맞이 등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연중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화순천 꽃강길은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와 더불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음악분수의 다채로운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길은 화순에서 누릴 수 있는 힐링·추억의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인 지금 화순천 꽃강길을 방문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화순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갇아먹는

# 기생충이

#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